

듣지 않아 흘리는 눈물

사사기 2:1-10

마음 열고,
찬양과 나눔

- 어려운 일 당할 때(찬송 543장, 구 342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.

1980년대 범죄의 온상이던 뉴욕 지하철이 평화를 되찾은 비결은 거창한 소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, 작은 질서를 바로잡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 작은 변화로 불과 석 달 만에 경범죄가 줄어들었고, 수년 만에 강력범죄까지 급감했습니다.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'깨진 유리창 법칙'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이방 제단을 조금 남겨 둔 일을 고작 몇 가지 약속을 어긴 '작은 틈'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한 타협이 결국 공동체의 거룩함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균열이 될 것임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.

마음 다해,
말씀과 나눔

1.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(1-5절).
 - 1)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?(2절)
 - 2)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?(4-5절)

나눔 1 삶의 철저한 돌이킴이 결여된 후회와 눈물로는 영적인 무너짐을 막지 못합니다. 내 삶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뒤늦은 후회를 남긴 '나만의 보감'은 무엇이었는지 나눠 봅시다.

2 이전의 세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'다른 세대'가 일어납니다(6-10절).

1)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?(7절)

2)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고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비극적인 실상은 무엇입니까?(10절)

나눔 2 타인의 신앙에 의존하는 '빌려 온 믿음'은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. 다른 사람의 열심에 편승하지 않고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사귀를 누리는 경건의 자리는 어디인지 나눠 봅시다.

나눔 3 부모 세대가 신앙 전수를 멈출 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'다른 세대'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도록, 오늘 내가 보여 주어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.

마음 모아,
함께 기도

삶 _ 가볍게 여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, 매 순간 순종하게 하소서.

공동체 _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